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²²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²³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²⁴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²⁵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²⁶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²⁷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²⁸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6:22-28)

사람이 악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거나, 사람 안에는 오직 악만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선, 곧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안에 더없는 지복과 행복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선을 절대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선행)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자격을 받을 수 없기에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선을 받는 건 불가능할 거야, 선하면 천국 갈 자격이 있어(*self-merit*)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이지 아주 사악한 생각이잖아 하는 건 정말 지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천사, 모든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선 자체, 즉 선에 대한 애정 안에서 행복과 지복을 지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선 안에 있습니다. 이 선, 즉 이 체어리티(*charity*)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⁴³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⁴⁴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

눅6:22-28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하여 기도하라 ⁴⁵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⁴⁶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⁷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⁸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5:43-48) (AC.2371: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2371번 글 3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But it is false to infer from these considerations that a man can have an evil life and a good faith; or that because there is nothing but evil in man, he can not receive good from the Lord that has heaven in it because it has him in it, and that having heaven in it has also bliss and happiness in it. And it is certainl*

y very false to infer that because no one can merit heaven by any goo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receive from the Lord heavenly good in which self-merit is regarded as monstrous wickedness. In such good are all the angels, in such are all the regenerate, and in such are they who perceive delight, and even bliss, in good itself, that is, in the affection of it. Concerning this good, that is, concerning this charity, the Lord speaks thus in Matthew:

Ye have heard that it has been said,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nd hate thine enemy; but I say unto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and pray for them that injure you and persecute you, that ye may be sons of your Father who is in the heavens; for if ye love them that love you, what reward have ye? And if ye salute your brethren only, what do ye more [than others]; do not even the publicans so? (Matt. 5:43 - 48).

‘인자를 위해 육을 먹는 자’

이는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에 관한 주석 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And they said is one come to sojourn, and shall he judge indeed?)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각처에서 물려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려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지려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스스로 안다 자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지려 하는 사람은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주님을 만지려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려 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와 병이 치유됩

니다.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진리를 마실 수 있으며, 선에 주렸던 사람들은 선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와 주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주린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은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²²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육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에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입고 직접 오셔서 인류에게 참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자의 또 다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른 의미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를 통해서만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로 된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다른 뜻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거나 죽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고,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그랬으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진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양심적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 역시 진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미워할까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

들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미워합니다.

주님은 또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은 사람의 본질을 뜻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의 내면에 있는 사랑이요 애정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진실한 자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한 애정이나 의도를 왜곡해서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그랬습니다. 당시 장군의 정적들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왜곡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자가 선한 이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평가가 잠깐 달라질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²³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

‘인자를 위해 육을 먹는 자’

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것’이나 ‘상이 크다’ 하는 것은 모두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뛰노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상이 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상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 박해에 비례하여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신앙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조상들이 선

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상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영어 성경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말씀에서 아버지는 본래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선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자아에서 나오는 악을 뜻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아버지는 자아에서 나오는 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가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는 이 말씀은, 자아의 악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24절에서 26절까지는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특성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눅6:22-28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²⁴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진리를 핍박하는 자의 첫 번째 특성은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부자는 선과 진리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진리의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진리와 선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그 속에 선이 없는 진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며 참된 진리를 핍박했습니다.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2821번 글에는 ‘모든 위로는 선을 통해 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또 25절에서,

²⁵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이 그들을 ‘지금 배부른 자’라 하신 것은, 그리고 ‘지금 웃는 자’라 하신 것은 그들이 선에 대해, 의에 대해 전혀 허기를 느끼지도, 그리고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하다,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결국 ‘주릴 것이라’, 결국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선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결국 애통하고 우는 것은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성을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²⁶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생색을 내려 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아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면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선의 공로를 주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선한 일의 공로를 주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²²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7:22-23)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 하지만, 결국 내 힘으로 했다 자랑하는 자들이며, 스스로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공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설 때, ‘주님, 제가 천국의 꼬트머리에라도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³⁷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³⁸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눅6:22-28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입혔나이까 ³⁹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욕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마25:37-39)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더럽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스스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적인 부자라 자부할 때, 스스로 배부르다 생각할 때, 칭찬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반대편에 설 수 있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욕할 때,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느끼고 상대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이토록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²⁷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주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는 악을 뜻하고요, ‘미워하는 자’는 거짓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낱말이 짝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짝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원수와 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은 자칫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악과 거짓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싸움을 거듭남을 위한 싸움으로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악과 거짓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누군가 비난하거나 훼방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28절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는 악과 거짓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서의 말씀은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는 선한 사람을 음해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말합니다. 시험 중에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악과 거짓 자체는 미워해

야 하지만 우리의 선의와 진실을 시험하는 자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와 그들의 악과 거짓을 동일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음해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조차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⁴⁴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⁴⁵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⁴⁶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⁷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5:44-47)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선대

눅6:22-28

‘인자를 위해 욕을 먹는 자’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해를 끼치는 자들조차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지옥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억울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 실망하고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당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의 진실을 왜곡하고 말살하려 하는 것은 진실이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하셨습니다.

입니다. 주님은 오늘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원수와 대적들과의 싸움을 거둬주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와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예언자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민23:9)

아멘

원본

2018-03-18(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20(D6)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